통계를 통해서 분석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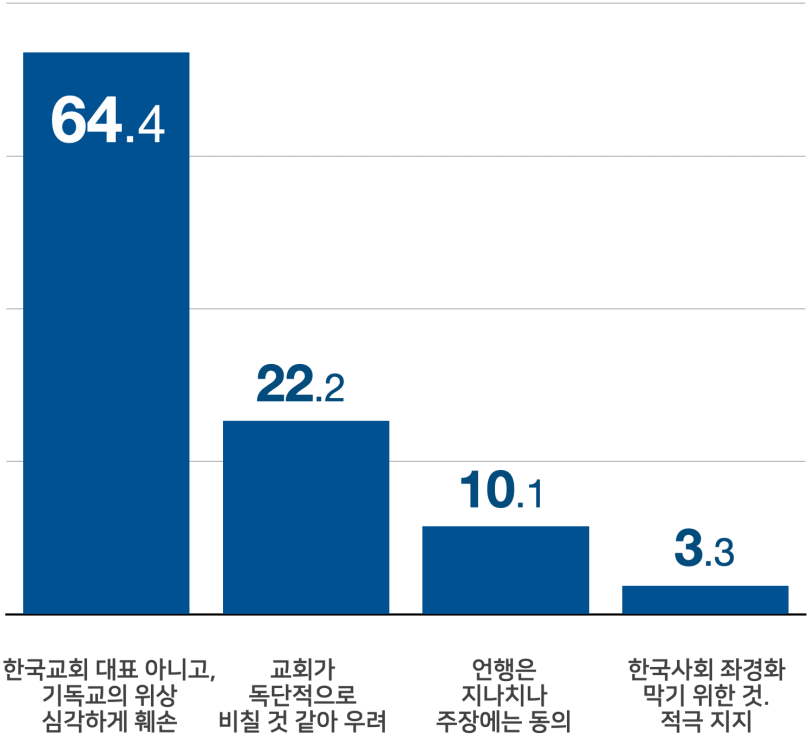
교인들 안의 "전광훈 현상"

"전광훈 현상"이라 함은 과거 목회자였던 전광훈 씨(2019년 8월30일 예장 백석대신으로부터 면직)와 궤적을 같이하면서 극우 정치세력과 손을 잡고 행하는 극단적인 말과 행동에 개신교인들이 동조하여 신앙과 자신의 정치 확신을 혼동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은 2019년 11월5일 개신교인 1,000명(무작위)을 대상으로 **1. 정치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전광훈** 씨와 **2.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 개신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설문 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조사는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기 이전에 극우 정치 세력화하고 있는 전광훈 씨에 대한 조사이기에 통계수치가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는 현재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개신교인들이 전광훈 씨와 그의 행보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은 이 조사와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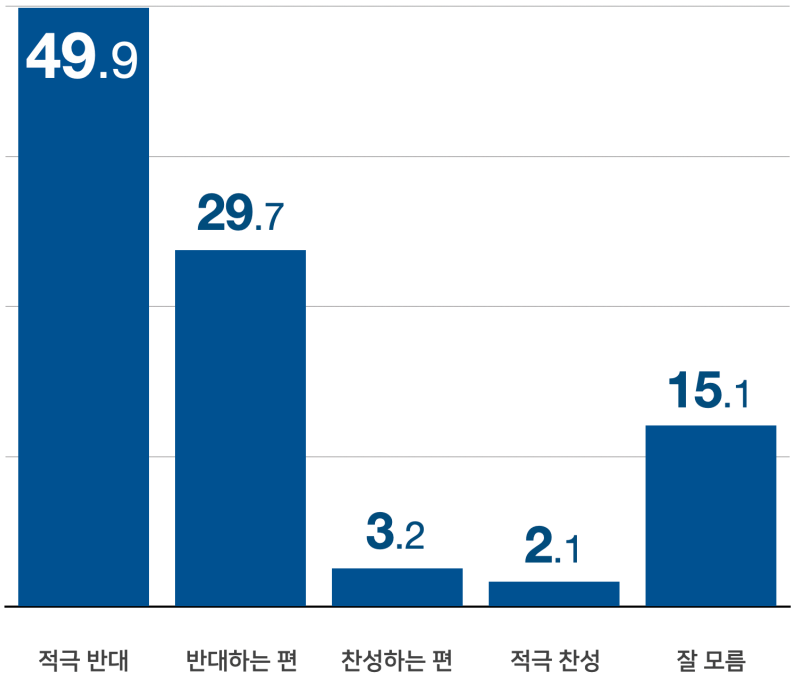
■ 전광훈 씨의 최근 언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응답자의 3/2이 가량(64.4%)의 교인들은 전광훈 씨가 한국교회 대표가 아니며, 전광훈 씨의 극우 정치적인 발언이 오히려 기독교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반감)고 응답했으며, 22.2%의 응답자는 전광훈 씨의 발언으로 교회가 독단적으로 비칠 것 같아 우려한다(우려)고 대답했다. 즉, 한국교회 교인들의 대다수라고 말할 수 있는 86.6%의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극우 정치 발언을 하는 전광훈 씨에 대해 반감과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또,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 개신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신교인의 79.6%가 적극 반대 또는 반대한다는 응답을 하였으며, 찬성 또는 적극 찬성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5.3%였다.

■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 개신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극우 정치세력과 손을 잡고 극단적인 말들을 하는 전광훈 씨에 대한 설문조사의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주목해 보아야한다.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통제변수와 독립변수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통제변수

1. 성별　　2. 연령　　3. 결혼여부　4. 학력　　5. 가구소득　6. 정치성향

○ 독립변수

1. 교단　　2. 신앙년수　3. 신앙형태(보수/중도/진보)

※ 독립변수에서 "교단"은 장로교(예장 합동, 예장 교신, 예장 개혁, 예장 백석, 예장 기타, 기장), 감리교, 성결교(예성, 기성), 침례교, 하나님의 성회(순복음)로 구분해서 조사를 하였다.

※ 신앙의 형태에서 보수/중도/진보는 아래와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근거로 분류하였다.

1. 나는 예수님을 믿으며, 그분을 알기 위해 여러가지 일을 하고 있다.
2. 나는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으며, 매일 그분의 인도하심에 의지한다.
3. 하나님은 삶의 전부이며, 그분으로 충분하다. 나의 모든 일은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4. 나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무오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위에 열거한 변수들을 바탕으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 성별, 연령, 결혼의 여부, 학력의 수준, 신앙의 년수와 형태는 "전광훈 현상"에 동조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 반면에 "전광훈 현상"에 동조하는 변수로서 의미가 있는 것들은 아래와 같다.

1. 가구소득　　2. 정치성향　　3. 교단

먼저, 교단의 경우는 **하나님의 성회(순복음)**가 적극적으로 "전광훈 현상"에 동조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의미있는 분석 값은 **가구의 소득이 적을 수록, 정치 성향이 보수적일 수록** "전광훈 현상"에 지지한다는 것이다. 특별히 가구의 소득 비율에 비해서 교인 개인의 **정치성향**이 5배 정도 더 강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계가 보여주는 결과는 현재 "전광훈 현상"에 교인들이 동조하고있으나(목회자를 포함한), 이것은 신앙적인 믿음의 영역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정치적인 성향을 따른 선택이라는 것이다.

즉, 1. **교회가 언제라도** (극우이던 극좌이던) **정치에 휘말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동시에**

2.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과 확신을 믿음**(신앙)**의 영역이라고 혼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